

요동치는 유통업계...포스트 코로나 대비 협업·쇄신·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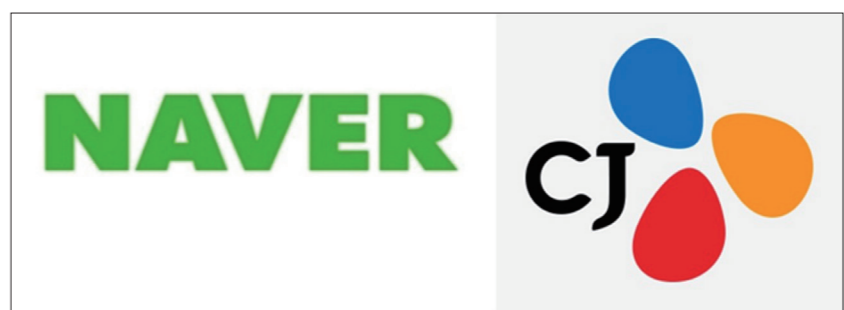
유통업 온라인 전환에 코로나 사태 영향 포스트 코로나 대비 생존 움직임 빨라져 네이버, CJ 협업해 물류 약점 완전 보완 신세계 이마트 부문 온·오프라인 연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유통업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빠른 속도로 진행돼 온 유통업의 온라인 대 전환과 함께 올해 초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앞으로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해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기업과 협업하고, 인적 쇄신을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 경계를 없애는 방식으로 적극 대응에 나섰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지금보다 더 잠잠해지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업계 사전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년부터가 진짜 경쟁이 시작되는 시기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온라인 유통 장악 위해 진격하는 네이버
국내 e커머스 기업 중 지난해 거래액 규모로 가장 큰 회사는 네이버(20조9250억원)였다. 쿠팡(17조7700억원)이나 이베이코리아(16조9770억원)를 앞섰다. 다만 네이버는 취약한 물류 시스템이 항상 문제였다. 네이버는 CJ 그룹과 협업해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 네이버와 CJ그룹은 지난 26일 6000억원 규모 주식을 교환하며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이를 통해 네이버는 CJ 대한통운이라는 강력한 풀필먼트(포장·배송·재고 관리)를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시스템을 파트너를 얻게 됐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막대한 트래픽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쇼핑몰이 쿠팡만큼 빠르게 배송도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네이버는 CJ와 협업으로 라이브 커머스 시장 장악도 노리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는 모바일 쇼핑 방식이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출연해 판촉 방송을 하고, 시청자와 직접 소통하며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는 3조원대로 추정된다. 2023년엔 10조원대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드라마·예능·음악 등 국내 가장 뛰어난 영상 콘텐츠 제작 집단인 CJ가 네이버에서 양질의 라방을 시작하면 파괴력이 클 거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인적 쇄신으로 위기 넘으려는 롯데쇼핑
수십년 간 국내 유통 최강자로 불렸으나 최근 극심한 실적 부진에 빠진 롯데쇼핑은 인사 혁신으로 위기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올해 연말 임원 인사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 가량 앞당기면서

파격적인 인적 쇄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젊고 유능한 인재를 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외부 인사 수혈도 마다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쇼핑이 지난 14일 기획전략본부(상무)으로 컨설팅 회사 출신 외부 인사인 정경운(48)씨를 영입한 건 체질 개선을 위한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는 백화점·e커머스·마트·슈퍼·톱스 등 5개 유통 사업부 경영 전략을 총괄하는 요직이다. 이 임무를 롯데 출신이 아닌 인사에게 맡기면서 이례적으로 원포인트 발령까지 한 건 큰 변화를 예고하는 일종의 메시지라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상무급이긴 하지만 순혈주의가 강한 롯데 전통을 볼 때 조직을 새롭게 다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롯데쇼핑에 대대적인 인사 바람이 불어닥칠 거라는 건 지난 8월부터 예견됐다. 쇼핑 부문 2분기(4~6월) 영업이익이 1년 전과 비교해 98.5% 증발하는



등 최악의 위기를 맞은 직후 그룹 내 2인자로 불렸던 황각규 부회장마저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신동빈 회장이 지난 5월 일본에서 돌아온 뒤 DT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꾸준히 강조한 것과 맞물려 인사를 통해 조직을 완전히 개편해 나갈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체제로 가는 신세계
신세계그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 운영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 15일 이마트 부문 임원 인사를 하면서 강희석 이마트 대표이사를 SSG닷컴 대표이사에 겸직토록 했다. 신세계는 이 인사에 대해 "온라

인 역량 강화 및 온·오프 시너지 창출과 조직 효율 제고 및 신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따로 운영돼 온 이마트와 SSG닷컴을 단일 의사결정 체제로 재편해 온라인 유통과 오프라인 유통 연계를 더 매끄럽게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나타난 SSG닷컴의 빠른 성장세에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의 강력한 바인 파워를 결합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SG닷컴의 지난해 거래액은 3조6000억원 규모다. 업계는 올해 SSG닷컴 거래액이 최소 40~5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SSG닷컴은 12월부터 오픈마켓도 열 예정이다. 김미희기자



홈플러스, 4주간 '블랙버스터' 개최
홈플러스는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4주간 전국 대형마트, 쇼핑몰, 익스프레스, 온라인몰 등 전 채널에서 대규모 '블랙버스터' 할인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 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반값'으로 줄이고, 침체된 내수 경제를 촉진시킨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업계 첫 로컬푸드 전문관 조성

내달 5일 식품관 새단장...100㎡ 규모 조성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업계 최초로 식품관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조성해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개월여 공사기간을 마치고 내달 5일 새단장 오픈하는 식품매장에 전남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한 '전남도 로컬푸드 전문 직매장'을 함께 개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에 약 100㎡(30평) 규모로 조성했다. 백화점 업계 최초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해 7월 전남도의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화순 도곡농협이 맡는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생산된 상추, 방울토마토, 깻잎 등 신선 농산물과 전남 지역 명인 가공식품 800여개 품목이 직거래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예정이다. 생산자 중심의 로컬푸드 직매장인 만큼 판매하는 상품은 100% 생산자 실명제로 운영된다. 백화점 업계 최초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해 8월 전남도와 롯데

백화점 호남총청지역점이 체결한 '농수특산물 판로확대 업무 협약'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업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만큼 새로운 지역 상생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정윤성 롯데백화점 호남총청지역장은 "당일 생산된 신선한 로컬푸드를 업계 최초로 전문관 형태로 고객들에게 선보이게 된다"며 "지역 상생에 앞장서고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매장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무주택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0.2%p 금리 인하

내일 이후 신규 실행 대출부터 적용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평균 0.2%포인트(p)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 상품부터 이용자 약 8만5000명이 내야 할 이자 부담이 연 26만~36만원가량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기금을 재원으로 운영 중인 구입자금 대출 상품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인하 추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0.2~0.25%p 금리를 인정한 데 이어 이번에 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일반 디딤돌의 금리는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현재보다 평균 0.2%p 낮아진다. 이 상품은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000만원) 이하, 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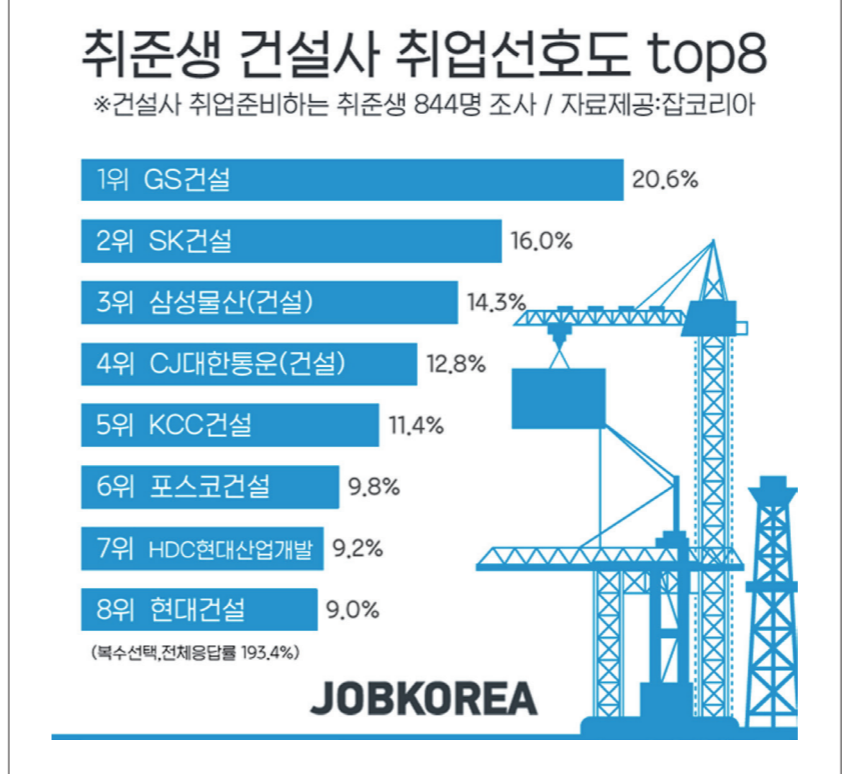


산 3억91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2억원 한도로 신청 가능하다. 대상별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실제 대출 금리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기금은 ▲신혼가구 0.2%p ▲생애최초 구입자 0.2%p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p(0.1%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0.7%p 등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주거부담이 연간 약 26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신혼 디딤돌 상품의 금리도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로 종전보다 평균 0.2%p 내린다. 이 상품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

기동취재본부

건설사 취업선호도 1위 'GS건설'... 2년 연속 1위

건설사 취업선호이유, '평소 기업이미지' > '높은 연봉'



건설사 취업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건설회사 1위로 'GS건설'을 꼽았다. 'GS건설'은 지난해 동일조사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취업준비생 건설사 취업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건설사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844명에게 '가장 취업하고 싶은 건설회사'를 물어보게 했다. 이번 조사는 2019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50개사를 보기문항으로 조사

16.0%로 높았고, 이어 '삼성물산(건설)'이 응답률 14.3%로 다음으로 높았다. 이 외에는 ▲CJ대한통운(건설_12.8%) ▲KCC건설(11.4%) ▲포스코건설(9.8%) ▲HDC현대산업개발(9.2%) ▲현대건설(9.0%) 순으로 취업하고 싶은 건설사로 꼽혔다. 취업하고 싶은 건설사 순위는 취업준비생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이 꼽은 건설사 취업선호도 1위는 'GS건설'로 응답률 24.2%로 약 4명중 1명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남학생들은 ▲SK건설(18.5%) ▲삼성물산(건설_13.8%) ▲KCC건설(13.8%) ▲CJ대한통운(건설_12.8%) ▲HDC현대산업개발(11.9%) ▲현대건설(11.1%) 순으로 취업선호도가 높았다. 건설사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선호 기업 선택에 영향을 받은 요인 1위는 '기업 이미지'였다. 위에서 꼽은 건설사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평소 갖고 있던 기업 이미지'라 답한 취업준비생이 응답률 4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높은 연봉수준(24.8%) ▲직원 복지제도도 근무환경(20.9%) ▲언론/지인을 통한 기업의 평판(20.7%) 순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취업준비생이 많았다. 이외에 남학생 중에는 '건설업계 선도기업 이미지'를 꼽은 응답자가 18.3%로 여학생(11.4%)보다 소폭 높았고, 여학생 중에는 '기업의 평판'의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자가 22.3%로 남학생(19.0%)보다 소폭 많았다. 서선욱기자